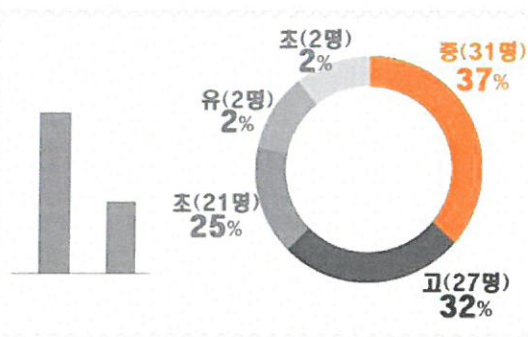


물놀이 안전

"주간 안전 신호등"

○○중학교 김○○학생은 날씨가 너무 더워 친구들과 함께 동네 하천(강)에 수영을 하러 갔다.
그런데, 김○○학생은 수심이 깊지 않아 조금 조금씩 더 들어가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되면서, 당황하여 허우적거리면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알아두면 좋은 안전교육자료"



◆ 물놀이 전에 먼저 해야 할 것들은?

-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피부 보호를 위해 썬 크림을 바른다.
- 머리카락이 길면, 묶거나 수영모를 쓴다.(머리가 목에 감길 위험이 있음)
- ▶ 물 근처에서 아이들이 혼자 놀지 않도록 합니다.
- ▶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친구를 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합니다. 미끄러운 곳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1. 수영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2. 몸 적시기(다리 → 팔 → 얼굴 → 가슴)
3. 몸에 소름이 돋을 때, 물에서 나옴
4.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위험
5. 식사 후 30분 뒤에 물에 들어가기
6. 친구를 밀거나, 장난치지 않기
7. 장시간 수영 NO, 혼자 수영 NO
8. 물에 빠진 사람 발견하면,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하기
9. 물에 뛰어 드는 무모한 구조 금지
10. 안전한 구조 - '패트병, 장대, 로프, 튜브'와 같은 물에 뜨는 물건을 이용하여 구조하기

**"물 속에서 경련이 일어나면~
몸에 힘을 빼고, 경련 부위를 주무른다.
위(stomach) 경련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구급대를 부른다."**

*전북안전 매뉴얼(앱)에서 '물놀이'를 검색하여 동영상으로 배워요.

"이야기 해봐요"

위 상황에서 김○○ 학생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해봐요.

답 예시) 먼저 '구해 주세요' 라고 큰소리로 외친 다음, 119에 신고한다.
그리고 주변에 물에 뜨는 물건(패트병, 로프, 튜브, 막대 등)이 있으면 던져준다.
구조 경험이 없다면, 무모한 구조는 하지 않도록 한다.